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당선자가 1일 오후 광주 서구 선 거캠프 사무실에서 꽃다발을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당선인이 1일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선거캠프 제공

광주 민주당 '씩씩이'...전남 무소속 '돌풍'

광주시장·5개 구청장 민주당 후보 압승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중 무소속 6~7명 당선 전망

6·1지방선거에서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이 '씩씩이' 해 이번은 없었던 반면, 전남은 무소속 돌풍이 두드러졌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결과에 따르면 오전 0시35분 현재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압승했다.

전남은 기초자치단체장 22명 중 무소속 후보 당선이 6~7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장 선거는 예상대로 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를 크게 앞서며 당선됐다.

5개 구청장 선거에서도 광주 동구 임택 후보, 서구 김이강 후보, 남구 김병내 후보, 북구 문인 후보가 승리했다. 광산구 박병규 후보는 험난한 경선 과정을 거쳤지만, 본선에서 홀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공천과정으로 현직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 격전지로 분류됐던 광주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김이강 후보가 무소속 서대석 현 청장을 눌렀다. 무소속 바람은 돌풍이 아닌 '찾잔속의 태풍'에 그쳤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 잡음이 잇따르면서 텃밭 민심은 싸늘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지역 투표율이 37.7%로 전국 최저, 역대 선거 중에서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이를 말해준다.

무투표 당선이 기초단체장을 포함해 13명이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의

공천과정의 잡음을 비롯해 일당 독점 패배, 대선 패배 후유증, 정책 의제와 경쟁 실종 등이 겹쳐 유권자대거 이탈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지역은 기초자치단체장 22명 중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곳은 박홍률 목포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강진원 강진군수, 김희수 진도군수, 김산 무안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등 6명에 달한다. 광양은 개표율이 낮지만 무소속 정인화 후보가 민주당 김재무 후보를 앞섰고 있다.

시장·군수 22명 중 27.3%, 무소속 후보의 출마와 당선은 민주당

의 오만한 태도와 공천 잡음이 단초가 됐다.

무소속 당선인 6명 중 4명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후 반발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접전지역은 10여 곳에 달했다.

전남 정치 1번지 목포에서는 박홍률 후보가 민주당 공천에 배제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결국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깃발을 들고 나온 김종식 후보를 제쳤다.

순천시 노관규 전 시장이 컷오프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오히려 후보를 꺾었다. /김도기 기자

광주 투표율 37.7%...전국 꼴찌·역대 최저

일당 독점 무투표 당선, 공천 잡음·정치 무관심 등

전남 58.5% 전국 최고...격전지 중심 투표율 높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지역 투표율이 3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선거 중 최저 투표율이다.

전남 지역 8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 30분 기준 8회 지방선거 광주 투표율(사전·우편투표 포함)은 37.7%로 전국 17개 시군 중 가장 낮았다.

광주는 2012년 19대 총선부터 올

해 20대 대선까지 8번의 선거를 포함, 역대 선거 중 최저 투표율을 보였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3회(2002년) 42.3%, 4회(2006년) 46.3%, 5회(2010년) 94.8%, 6회(2014년) 57.1%, 7회(2018년) 59.2%로 이번이 최저다.

최저 투표율 배경으로는 일당 독주와 단독 출마에 따른 무투표 당선인이 13명(광산구청장, 시의원 11명, 기초의원 비례 1명)에 달하는 점, 공천과정의 잡음, 정치 무관심, 정책 선거

실종, 대선·총선보다 결집력이 떨어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독점 구조인 광주에서 20대 대선 패배 이후 정치인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밟고 밟고 싸움에만 혈안이 된 점, 지도부내 갈등 등으로 약재가 겹쳐 유권자 대거 이탈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남 투표율은 5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4년 전 7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광주 59.2%·전남 69.3%)과 비교하

면 광주는 21.5%포인트, 전남은 10.8%포인트 낮은 수치다.

광주에선 이번 8회 지방선거 선거인수 120만 6886명 중 45만 4541명, 전남에선 158만 98명 중 92만 4000명이 투표를 마쳤다.

광주 자치구별 투표율은 동구 42.5%, 북구 38%, 서구·남구 각 39.7%, 광산구 33.3% 순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고흥이 77.9%로 가장 높았다.

/김도기·박종배 기자

■ 광주 기초단체장

- 동구청장 임택(민)
- 서구청장 김이강(민)
- 남구청장 김병내(민)
- 북구청장 문인(민)
- 광산구청장 박병규(민)

■ 전남 기초단체장

- 목포시장 박홍률(무)
- 여수시장 정기명(민)
- 순천시장 노관규(무)
- 나주시장 윤병태(민)
- 광양시장 정인화(무)
- 담양군수 이병노(민)
- 장성군수 김한중(민)
- 곡성군수 이상철(민)
- 구례군수 김순호(민)
- 고흥군수 공영민(민)
- 보성군수 김철우(민)
- 화순군수 구복규(민)
- 장흥군수 김성(민)
- 강진군수 강진원(무)
- 완도군수 신우철(민)
- 해남군수 명현관(민)
- 진도군수 김희수(무)
- 영암군수 우승희(민)
- 무안군수 김산(무)
- 영광군수 강종만(무)
- 함평군수 이상익(민)
- 신안군수 박우량(민)

6·1 지방선거	2·3·4·12면
무역수지 적자 경고등	9면
노로바이러스 장염환자 증가	13면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립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립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